

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

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(11월 3~4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베트남 11월 경제 동향

- '26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10% 목표
 - 베트남 국회는 사회경제 주요 15개 목표를 골자로 한 2026년 사회경제적 발전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했으며, 결의안에 따르면 내년 내년 경제성장률은 최소 10% 이상 달성, 1인당 GDP는 USD 5,400~5,500, 물가상승률 목표 통제 범위는 4.5% 내외 목표
 - 또한 결의안에는 신용 흐름은 생산 및 기업 부문으로 유도되어야 하며 잠재적 위험이 있는 부문으로의 신용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며, 이 외 정부는 금과 부동산, 주식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및 외식업·소매업에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정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
- 베트남 국회, '26년 정부 예산안 가결
 - 베트남 국회는 2026년도 중앙 예산안에 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, 결의안에 따르면, 내년 중앙 예산은 세입 VND 1,225조, 세출은 약 VND 1,810조 등 약 VND 3,000조 규모로 편성
 - 재무부 장관은 내년 중앙 예산 지출은 전체 국가 지출의 약 57%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는 국방안보와 정치 안정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사업들의 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, 또한 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중앙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, 사회보장 정책 및 임금 개혁에 따른 비용 VND 479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
- 베트남 중부지역 태풍으로 약 USD 5.5억 상당의 경제적 피해
 - 최근 중남부 지역에 잇따른 태풍 및 폭우로 인해 닥락성, 칸화성, 다낭시, 후에시 등의 지방이 홍수 및 산사태를 겪었으며, 약 108명의 사망자 및 VND 14.3조(USD 5.5억)의 경제적 피해 발생

2 베트남 정부 동향 및 정책

- 베트남 총리, 행정개혁 가속화(연내 30% 축소·철폐) 거듭 촉구
 - 팜 민 쩌 총리는 올해 행정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내 행정 절차 및 사업 요건 간소화·철폐 가속화에 나설 것을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
 - 공문에는 행정 절차 2,165건, 사업요건 2,047건 등의 간소화·철폐를 위한 법률 규정 485건 개정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
 - 총리 지시에 따라 부처 및 유관기관 14곳은 법률 문서 319건 개정을 연내 마무리지어야 하며, 공상부는 사업 요건 최소 30% 축소 계획을 확정해 11월 중 총리에게 제출해야 함
 - 정부에 따르면, 기업과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는 서류 작업 최소화를 위해 연내 모두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, 각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 내 모든 행정 절차가 지리적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연내 내부 시스템 등을 검토·최신화해 지방 차원에서 100% 관할 구역 중립 절차를 완료해야 함
- 호치민시, 농업용지→주택개발 허용 시범사업 실시
 - 호치민시는 높은 주택 수요에 반해 한정된 가용 토지로 신규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음에 따라 농업용지에 제한적인 상업용 주거 개발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승인
 - 호치민시는 이번 시범 사업이 법적 문제로 인해 수년간 급감한 상업용 주택 공급이 다시금 활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
-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, 하노이시 도시철도협력포럼 개최 및 하노이 부인민위원장, 건설부 차관 등 면담
 - 하노이시 부인민위원장은 하노이는 여러 유리한 법적 조건을 바탕으로 '26년 10%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이 과정에서 인프라 개발, 특히 교통 인프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말하며 한국측과 긴밀한 협력을 약속
 - 한-베 도시철도 협력포럼에서는 하노이, 호치민시, 다낭 등 주요 도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정책, 기술 협력, 사업 입찰, 운영 인력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

3 베트남 기타 동향

- 동나이성, 룡탄신공항 개항 앞두고 교통인프라 대대적 확충
 - 동나이성 인민의회는 깃라이대교 건설사업, 동나이2대교(룡흥교) 건설사업, 2호영로 2단계 사업 등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들에 대한 투자 정책 승인
 - 호치민시와 인접한 동나이성은 남부 지방의 대표적인 산업 중심지 중 하나로, 지역 간 높은 통행 수요에도 불구하고, 대부분의 통행량은 동나이1대교(1번 국도)와 룡탄교(호치민-룡탄-저우저이 고속도로), 년짜대교(제3순환도로) 등 3개 구간에 주로 의존해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음
 - 현재 호치민과 동나이성은 내년 중순 룡탄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지역 간 연결성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발에 적극 협력 중임
- 한국전력기술, 베트남 해상풍력·그린수소 사업 개발 추진
 - 한전기술은 하노이에서 현지 재생에너지 사업개발회사인 Minh Thach Group과 베트남 연안지역의 신규 해상풍력 발전 및 그린수소 프로젝트 공동개발을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
 - 베트남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공식선언하고,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%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, 특히 풍부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2035년까지 해상풍력 설비용량 목표를 17GW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
 - 발전소 전주기 설계 기술력을 보유한 한전기술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수소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, 특히 지난 2월 종합 준공된 국내 최대규모의 100MW급 제주한림해상풍력사업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해상풍력 사업 진출 및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글로벌 그린수소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
- 베트남 빈스피드, 주요 사업 앞두고 자본금 5.5배 증액
 - 빈스피드는 북남고속철도, 하노이-꽝닌 고속철도, 벤탐-견저 등의 주요 사업을 앞두고 대규모 자본 확충 (현재 자본금 VND 33조)

□ 일반 프로젝트 동향

① (베트남) 하띤성 국제항 건설 추진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베트남 건설부
- (사 업 비) VND 8.8조 (USD 3.3억)
- (사업내용) 총 면적 123ha, 연간 화물 처리 용량 940~1,130만톤
- (추진계획) '28.2Q. 개항 목표

- (주요사항) 하띤성 재무국은 빈그룹의 선즈영국제항 건설계획에 대한 투자 정책을 승인
 - 빈그룹에 따르면 선즈영국제항은 완공 시 하띤성 및 인근 지역의 일반 화물, 컨테이너 하역·운송·보관 등의 기능을 담당할 예정으로, 주요 시설로는 10만 톤급 일반 화물선 및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총길이 1,050m의 부두 3곳과 창고 시스템, 항만 서비스 인프라, 선박 정박 구역, 수로연결로, 선화장 등이 포함

② (베트남) 박닌성 자빈공항 건설 추진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박닌성 인민위원회
- (사 업 비) VND 197조 (USD 75억)
- (사업내용) 총 면적 1,884ha
- (추진계획) '25.11. 토지수용 착수

- (주요사항) 2단계로 나눠 건설될 예정이며 이 중 2025~2027년 1.1단계 사업은 202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를 염두에 두고 필수 시설 건설이 진행
 - 2026~2030년 1.2단계 사업은 연간 3,000만 명 수용이 가능한 공항을 목표로 진행
 - 2031~2050년 2단계 사업에서는 연간 여객 5,000만 명, 화물 250만 톤을 목표로 확장 사업 진행 예정